

『박돈희의 향기나는 글』

사랑방 커피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가벼운 걸음으로 오세요 무거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면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값비싼 차는 없지만

인생처럼 쓰디 쓴....

그러나 경우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향기를 가진 커피를 드시켰어요 어쩌면 승승같은 커피 일지도 모릅니다 탈 줄도 모르는 커피지만, 마음으로 타기에 맛이 없어도 향기만은 으뜸입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오셔도 좋아요 어차피 인생이란 산뜻한 양복과 세련된 생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멍거지에 다 헤어진 옷이라 해도 경우님 마실 커피는 있답니다

경우님 피로를 풀어 줄 향기 있는 커피만 타 드시켰어요 맛있는 커피나 차가 생각나시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맛없다고 향기만 맡고 가셔도 좋구요 돈은 받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에요 그때의 무거운 마음의 빛을 내려 놓고 가세요

내려놓기 힘들시거든 울고 가셔도 좋습니다 삶이 힘들시거든 언제든 오세요 맛이 없더라도 향기 있는 커피를 타 드리지요 마시기 힘들시거든 마음으로 드세요



새벽을 알리는 닭의 해(을유년)를 맞이하여 경우들의 휴식공간으로 중앙경우회에 사랑방을 열게 되었다.

도시함복관인 신당동 시대를 열면서 22세기를 준비하는 경우들의 꿈과 현직에서의 피곤한 심신을 이제 여유롭게 다스리는 편안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경우이면 누구나 양지바르고 잘

큰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가 아파 양호실에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가 아프다네 가슴이 덜컥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내가 근무 중이라는 것도 잊고 순찰차를 몰아 학교를 찾았다. 다행히 아이의 학교가 우리 관내이기에 서둘러 갈수 있었다. 아침부터 미열이 있다고 하더니 증상이 심해져 양호실까지 가고 선생님이 내게 연락을 취하신 모양이다.

아이를 태우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는데 큰 이상이 없으니 약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순찰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승용차가 있어 쫓아 도로 옆 안전한 곳에 세웠다.

예를 갖추고 신호위반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운전한 아 주머니가 차에서 내려 내가 언제 신호위반을 했다고 똑 잡아떼며 오히려 큰소리로 삿대질을 한다. 아이가 없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이 양반이 경찰이면 다야. 내가 언제 신호위반을 했다고 지랄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있으면 내봐봐."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무리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도 난 민중

다듬어진 이곳에서 환담할 수 있고 각자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고뇌할 수 있는 공간이 구홍일 경우회장님의 배려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드디어 인터넷 카페보다 더 현실감 넘치는 호화실물 사랑방이 마련

사랑방은 사랑채에 있는 방, 또는 상방(上方)으로서 사랑으로 쓰는 방을 말하는데 한옥에서 주로 바깥주인이 거거하는 곳으로 그 집의 주인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담하는 장소를 통칭하여 사랑방이라고 한다. 경우면 누구나 경우회의 바깥주

리고 핵심적인 장소에 큰 사랑방을 개설하고 장기, 바둑, 안락의자, 환담 티 테이블, TV, 컴퓨터, 커피, 음료수, 과일 등등을 잘 준비하여 놓았다. 그리고 사람도 자원 봉사자를 배치하였다. 부드러운 처신에 일가견이 있는 하재훈씨를 비롯하여 잔

잔반반 신인인사회 때 정상천, 최석원, 안영모, 이해구, 강민창, 김효은 등 경우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신당동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신(地神)을 밟고 가신 면면을 볼 때, 구홍일 회장의 회장취임, 공약사항들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비쳐지기도 한다.

또한 허준영 경찰청장의 축사를 들으면서 더 좋은 전·현직간 유대 강화도 경우회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회관 이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들의 꿈인 경우회 관 건립문제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담아 보면서 을유년 벽두에 경우회의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警友會 사랑방을 열면서

전용찬 회원 (前 경북·강원경찰청장)

인이 되어 교통 편리한 이곳에서 옛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꾸어보는 장소라 하겠다. 그래서 경우회 집행부는 정말 신경을 써서 사무실 중에 가장 양지바

화비재한 사랑방 방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보기로 하겠다. 좀 더 성실하고 자상한 향단이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작정이다.



니께 답했다. "아주머니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옆 자리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소중한 아이가 다치거나

부로 하지도 않을 거야." 아이는 어느새 아픈 것도 잊고 씩 웃으며 내 품에 안겨왔다. 역시 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뻐뻐했다. 근무를 끝내고 집 오는 길에 시내를 돌아서 흐르는 강이 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가 초등 학교 시절 단 한번 물놀이를 했던 패 넓고 맑은 강이었다. 강물은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평화롭게만 흘러갔다. 물새가 바위 끝에 앉아 한가로이 노닐고 냇물은 햇살 받아 반짝인다. 물은 분명 인간에게 필요하다. 하

가지면 안 되나요?" 난 웃음으로 아이들을 안고 "아빠는 평범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어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잠들 수 있잖나. 너 주전자 알지? 주전자는 자신의 몸이 갈증에 달아오르도록 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날마다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물이 나뉘고 있으면 용광로 속에 녹아나 다시 사람들이 필요한 다른 물건으로 태어나지. 하지만 주전자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그 고마움을 망각하고 살잖나. 우리가 묵묵히 내 소임을 다하면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진실을 알아주고 우리의 필요성과 경찰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커져 갈 거야." 이 말에 우리 아이는 "아빠 정말 멋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사랑하고 용서하고'이구나. 아빠 사랑해요."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었으면...

경사 김형철 (전북 남원경찰서)

하나?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머니의 차 안에 있던 예닐곱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엄마 빨간볼에 왔잖아. 빨리 잘못했다고 해." 아이들이 거짓말을 못한다더니 사실이었다. 그때서야 아주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쥐구멍 찾듯 안절부절 했다.

난 패심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머니의 아이와 내 아이의 바라보는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로 아주머

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도 있고 아주머니가 잘못을 인정하니 훈방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아주머니는 참피한지 서둘러 자리를 떠나갔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내 아이가 혈안이 되어 씩씩거리며 내게 따진다. "아빠 왜 목까지 얻어먹고 그냥 봐줘?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난 아이에게 "응! 네 동생 같은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많이 배워서 다음부터는 절대 위반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잡아떼지도, 말을 함

지만 거센 물살도 있고 오염된 물도 있듯이 인간도 그런 모양이다. 하긴 그런 사람이 없으면 법도 경찰도 필요 없겠지.

그래도 강을 따라 흐르는 맑은 강물처럼, 그 속을 뛰노는 물고기처럼, 차가운지도 모르고 노니는 겨울 철새처럼 평화롭기만 한 세상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집을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덤덤 달려와 안긴다. 큰애는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는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직장

난 오랫동안 아이들을 꼭 안아 주었다.

그리고 충심으로 손 모아 기도한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떳떳하고 의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맑은 바 위에서 심혈을 다하는 우리 모든 경찰가족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나날 되도록 해주세요.

수필

怪癖의 決算

臥山 최영종 (수필가)



날까지는 꼬박 이레가 남았으니 남에게 줄 것 주고 남이 나에게 주는 것 받으면서 따지는 것도 이르다는 말이다.

사실 일정한 기간을 잘라 그 기간 안의 수지를 셈한다는 것을 결산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다지만 나는 이번에도 설날을 앞두고 새해 연하장을 백장도 아닌 많고 많게 보냈더니 이제 슬슬 나에게도 감사, 기원, 발전을 뜻하는 크고 작은 연하장들이 하나 둘씩 우리 집 우편함을 채우기 시작한다. 설날도 아직은 멀었는데 몇 장 보냈으니 몇 장 돌아올까 하

고 결산하기는 아직은 분명 이르다. "최 형 설날 연하장 감사하오. 잊지 않고 해마다 챙겨주고..." "아니, 신경의 원단을 보낸 자가 언젠데...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다지인도 멋지던데... 인사의 글도 좋고... 나는 안 보냈는데 해마다 빠짐없이 꼭 보내주니... 고마울 뿐이야" "정말, 최 형이 대표로 있다는 우리의 설날 받들기 모임 훌륭한 모임이야, 인간 위에 군림하는 기계 문명 밑에 깔려든 우리의 설날을 최 형 같은 사람들이 되찾기 하려는 운동으로 다시 이는 것 같아 다행이네 만..."

위 글들은 내가 보내 설 날 연하장을 받고 전화로나 서신으로 심지어는 이 메일로까지 보내 주신 분들 의 성원(聲援)들이다. 그러니까 내

가 "우리 백민족의 가장 큰 명절 설날 아침에 세배 드립니다. 수복강녕 하고 지내해 못다 하신 일 올 한 해 꼭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닭띠 을유년 새해 첫 아침에 설날 받들기 모임 대표 외산 최영종 드림" 하고 글을 올리면서 문인들에게는 "을유년 올해에도 더욱 건필 하심을 다시 한번 비읍니다. 활개를 치며 큰 소리로 울어 천지를 깨우는 계명(鷄鳴), 닭 울음 처럼..." 하고 꼭 육필 족자를 동봉했지만 이 설날 받들기 모임 캠페인을 벌려 온지도 여덟해가 되었기에 세밀이나 성탄절 무렵에 연하장 보내지 않고 설날 무렵에 보내고 해서 기백(奇癖)의 사나이, 괴백(怪癖)의 수필가란 말을 주변에서 곧 잘 듣는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마다 해 대가에 이런 별칭도 있을 만 하고 나 역시 싫지는 않다. 어쨌든 내가 보내는 설날 아침에 받는 연하장은 해가 갈수록 인기가 있어 즐겁다. 성탄절에 연말에 신정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연하장. 그것도 인쇄소에 맡겨 낙관도 육필 서명 한 자 없이 보내는 무미(無味)하고 무생(無生)한 인간미 인정미 찾을 길 없는 송장같은 연하장의 세태가 똑 끊친 뒤 받아오는 생기발랄한 내 연하장을 만나니 반갑더라 인사에 전화에 이메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내가 정성드려 보낸 만큼이나 받은 사람 역시 족지 않은 생선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 칭찬이 대단하다. 칭찬도 그렇지만 나는 봉어를 보냈는데 월척이 넘는 대어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남이 않는 괴백이건 기백이건 슬만하구나하고 늘 저 멀리 끝자락에 걸쳐있는 석양

번의 월척은 경우회 K부장이 보내 준 것이었다. 나에게 열만큼 지면을 할애 줄지 몰라도 K부장의 글을 여기 줄여 옮기고 싶다. 『...전략... 또 한해가 가벼웠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 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 하는 마음을 지니고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을 감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 할 수 없기에 언제나 젖은 어깨 털어주고 때묻은 마음 헹구어 줄수 있는 내 마음의 동반자가 함께 있어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봅니다... 종략... 언제나 좋은 교훈 하고하여 주시고 경우신문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채찍 그리고 격의 없는 충고... 종략...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하늘 저 멀리 끝자락에 걸쳐있는 석양

빛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힘차게 응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얼마나 맛있고 감칠 맛나는 연하장의 글이나?

인쇄기 속에서 수없이 많고 많게 쏟아져 나오는 씩이 문드러진 연하의 말들.

이것 들 모두 조금치도 받은 사람과 보내는 사이를 생각 안한 천편일률의 연하장으로 식상한 글, 인사들이 아니더냐?

사람이란 항상 새로운 쪽으로 눈이건 귀건 코건 신경을 쫓길 줄 아는 인간만이 발전한다는 말이 나를 괴벽의 사나이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거듭 K부장에게 감사 올리며 문운이 대통하시기를 빌면서 어쨌든 글 그치려 하지만... -2005년 2월 3일-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우회 지역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 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관 사진 1매와 반명함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연간 12,000원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년 평생회원증은 회비가 200,000원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우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리며, 구독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명기)에 의거 구독료를 납부하면 됨
- 구독료 : 연간구독료 - 1만원
평생구독료 - 10만원(80세 이상은 무료, 70세 이상 80세 이하는 5만원,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7만원, 65세이하 10만원)
- ※ 입금계좌 (우체국: 012468-0151196 대한민국의재향경우회)
- ※ 문의전화 : 02-2234-1881

무궁화회(골프모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우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2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우회가 주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06:00~07:00)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제일은행 276-20-108132 현성일
-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우회 중앙회 사업부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우회 중앙회(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관 1매, 반명함관 사진 2매, 경우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 ~3일까지 09:00부터 경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년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경우회 홍보과장)에게 계좌납부(제일은행 276-20-174047 안오모)하거나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계좌납부시는 전화로 총무에게 연락바람(문의전화 : 02)2234-1881)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